

(...2 페이지에 이어)

트랜스젠더의 교도소 성폭행 사건 △2017년 미국 코네티컷 주 여성 육상경기 트랜스젠더 출전 사건 △2014년 미국 여성 격투기 경기에서 트랜스젠더가 상대 여성 선수의 두개골 파손 사건 △우리나라 여탕 입장 남성 ‘스스로 여성 인식’ 주장 사건 △2019년 우리나라 인권위 ‘성별과 다른 한복 착용자 무료입장 불허 차별’ 권고 사건 △우리나라 인권위, 성별 변경시 성전환 수술 요건 제시는 인권침해 결정 등의 사례를 열거했다.

그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미명 하에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은 그 심각한 폐해를 외국 사례들을 통해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당사 국민, 특히 여성들에게 돌아올 역차별과 기본권 침해를 고려할 때,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은 제정돼선 안 된다”며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여성’가족부 역시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는 기관 아닌가? 차별금지법을 미화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체의 시도들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성으로서 여성 언급했다고 비판... 혐오 발언 된 셈

정소영 미국변호사도 “2000년대부터 전 세계는 여성인권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맞고 있다. 소위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의 이름으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젠더 이데올로기(Gender Ideology)에 기반한 성별 파괴와 정체성 정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들의 아젠다에 여성인권이 함몰되고 있다”며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은 인간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 이들의 눈에 ‘여성’이라는 딱지는 떼내야 하고 지구 상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 아니”라고 풀이했다.

정 미국변호사는 “최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모성으로서의 어머니의 위대함’에 대해 언급했다가 큰 곤욕을 치른 일이 있다. 이 발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리 속에는 ‘여성을 아이 낳는 존재인데’, ‘아이 낳지 못하는 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에서 모성으로서의 여성과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언급했다고 이토록 비판을 받은 일이 있을까? 건전하고 당연한 상식이, 불법적 차별이자 혐오발언이 된 셈”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급진 페미니스트들과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미디어를 활용한 선전 선동을 통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쪽으로 여론을 이끌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은 지구상의 절반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인 여성인권에 관심이 없다”며 “여성들조차 차별과 혐오범죄의 가해자인 다수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관심은 제3의 성을 가진 더 적은 소수자, 역사적·문화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약자들에게 온통 집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정 미국변호사는 “이들의 활동이 강화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그나마 지금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보호되고 있던 대한민국 여성들의 인권은 매우 후퇴할 것”이라며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권리나 사생활 보호 같은 기본적인 인권마저 제대로 보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교육과 고용, 미디어와 정치의 영역에서 점점 생물학적 여성들이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정부에서 2030년까지 국립대 여성 비율을 25%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들 안에 트랜스젠더



▲ 정소영 미국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여성들을 차별과 혐오의 가해자이자 범죄자로 만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인권의 이름으로 여성의 여성성을 파괴하고, 여성됨의 가치를 폄하하고, 여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상한 법 앞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고 역설했다.



▲ 김지연 교수(영남신학대학교)는 “인간의 성별에 대해 ‘미정(Known)’ 또는 ‘넌바이너리(Non-binary)’라고 정체성을 부여하거나, 남녀 구별을 와해시키고 스펙트럼처럼 모호하게 인정한다면 그 사회 구성원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 포함된다면 실제로 생물학적 여성 학자들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트랜스젠더를 여성 교수 할당 숫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할 경우, 차별로 간주될 것”이라며 “이처럼 기업 등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들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까지 각 영역에서 존재했던 차별을 철폐하는 데 상당한 수준의 성공을 거뒀다. 완벽하진 않지만, 장애인, 아이들, 노인의 인권과 복지가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개별적인 법에 의해 보완되고 있다. 여성인권은 더 말할 것도 없다”며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통해 여성들을 차별과 혐오의 가해자이자 범죄자로 만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인권의 이름으로 여성의 여성성을 파괴하고, 여성됨의 가치를 폄하하고, 여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상한 법 앞에 지금 우리가 놓여있다”고 역설했다.

약하게, 성별 임상실험 효과 차이 갈수록 뚜렷해져

마지막 발제에서 김지연 교수는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항우울제 ‘프로작’이 개발된 것은 뚜렷한 남녀 구별을 전제로 한 ‘성별의학’의 성과였다. 세로토닌 수치 변화에 여성들이 좀 더 민감

한 것을 타겟팅한 신약”이라며 “그럼에도 한 인간의 성별에 대해 ‘미정(Known)’ 또는 ‘넌바이너리(Non-binary)’라고 정체성을 부여하거나, 남녀 구별을 와해시키고 스펙트럼처럼 모호하게 인정한다면 그 사회 구성원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남성과 여성을 뚜렷이 구별해,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실험 효과가 입증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남녀 구별 없는 의학적 연구, 이른바 ‘남성 중심 의학’을 반성하자는 성토까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일부 젠더퀴어 이론가들은 남녀 구별 자체를 잘못된 규범으로 매도하고 있어 참으로 아리리리하다”며 “여성이 임상실험에 참여하면서, 남녀의 신체적 기질이 거의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에 앞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여성인권 침해하고 여성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철폐하라!’는 제목의 성명서했다.

성명서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여성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을 역차별하는 법”이라며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 영역조차 ‘괴롭힘’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면, 여성들은 엄청난 역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 주어진 기회를 침해하는 심각한 여성 역차별법”이라며 “소수자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여성성의 가치를 폄하하고, 여성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우리 여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의 영성

중세를 암흑 시대라 합니다. 교회가 안일에 젖어 타락하고 교회가 권력에 취하여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나마 교회를 지킨 운동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유럽 각지에 수도원이 세워져 수도원 영성의 3대 선언인 청빈, 순결, 순명을 수도 생활 지표로 삼고 부패한 교회의 영성을 지켜 나가는 마지막 보루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 한 수도원에 로렌스라는 이름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유별났던 것은 수도원에서 오로지 접시 닦기에만 열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서양 식탁에는 접시가 가장 많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사용한 접시들을 깨끗이 닦는 것이 설거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식사 후 접시 닦기가 허드렛일에 속하기에, 수도사들은 접시 닦기 일을 기피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렌스 수도사는 한결같이 접시 닦기에만 열중하였습니다. 그는 온종일 침묵을 지키며 접시 닦기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는 접시를 닦으며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접시를 닦으며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 친구들은 아무도 로렌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로렌스 얼굴이 빛이 나고, 접시 닦는 그 자리에 들어서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시달리고 지친 영혼들이 로렌스에게 와서 마음의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접시 닦기 로렌스의 영성이 사방에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아랑곳함이 없이 계속 접시 닦기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몸으로 누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나는 두레수도원에서 생활하면서, 노동을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즐깁니다. 노동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노동 시간이 즐겁습니다. 노동하는 영성의 진미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노동의 값어치를 권하곤 합니다.

노동하면 우울증도 산만한 마음도 공황장애도 불면증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사에서 찬란히 빛나는 수도원 운동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였던 노동의 영성을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김진홍의 아침묵상]

당신에 대한 아름다운 추모는 현재의 삶만큼 중요합니다.

Pre-planning으로, 당신의 뜻 대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이는 재정적 준비뿐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기억되고 싶은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 입니다.

이 중요한 첫 단계를 Eden Brook과 함께 Eden Brook은 최근 캘거리 한인회와 Arbor Alliances Program을 통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저희 전문 카운슬러들에게 지금 바로 문의하십시오.

Corinne Wiebe T. 403-973-9051

Eden Brook Memorial Gardens & Funeral Home by Arbor Memorial
17th Ave SW & Lower Springbank Rd, Calgary
T. 403-217-3700 www.edenbrookcemetery.ca